

성인장애인의 장애인 야학 음악활동 참여 실태와 요구 분석*

Analysis on Participation Status and Need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in Music Activities at Night School for the Disabled

한 수 정**

Su-Jeong Han

초록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장애인 야학 음악활동 실태와 운영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 성인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음악활동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고 배우고 싶은 음악유형은 대중음악이며, 교육 횟수는 주 2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장애요인으로는 이동거리 및 교통수단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계자의 심층면담에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진행되는 효과적인 음악활동 운영과 교육 참여 지속의 중요성에 대해 문해교육 연계 및 반복교육의 중요성 인식, 성인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배려와 지원 확대 인식 등으로 범주화된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어: 성인장애인, 음악활동, 장애인 야학, 참여 실태, 요구 분석

Abstract This study identify the participation status of and operational needs for disabled adults in music activity at a night school for the disabled in D city. The subjects were 70 disabled adults participating in music program and educational officials.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music program and educational officials.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music programs, and most desired type of music to learn was popular music. The distance and means of transportation were found to be the obstacles to participate and the supports for this are most needed. Linkage with literacy education and repeated and continuing education are needed.

Key words: adults with disabilities, music activity, night school for the disabled, participation status, analysis on needs

* This paper is a modified version of the presentation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2019 Summer Conference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eaedumu@naver.com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30775/KMES.48.4.253>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권리보장은 사회적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령기 교육 이후 성인시기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장애인은 생애 주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과업을 필요로 한다. 성인장애인의 발달 가능성에 있어 사회적인 고립이나 편견, 차별적인 사회 현상이 만연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소외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3차 평생교육 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장애인의 계속교육과 안정된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은 아직 부족하며, 평생교육 지원 인력의 강화, 운영 지침, 역할 및 배치 등 다양한 정책의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의 통계청 자료 보고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장애인은 약 251만 명인 것으로 밝혔으며, 이는 전체 인구 중 4.9%로 확인되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성인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자립과 직업에 관한 교육적 비전이 제시되면서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한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Cho, et al., 2018)에서는 평생교육의 여러 영역 중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기초문해교육프로그램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성인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향유와 생애주기별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계획 및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은 중요하다. 그리고 성인시기의 전기, 중기, 후기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장애학습자의 운영과 요구에 적합한 예술교육 관련 학습내용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장애인의 학령기 이후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긴 성인시기의 생애를 아우를 수 있고 성인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욕구 해소와 참여율 제고를 위한 예술교육의 지속 및 지원은 강조된다.

2014년에 실시된 특수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주제별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석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조사에 일반인 참여도의 경우,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성인장애인 역시 음악프로그램을 포함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 사회적인 상호작용, 자기개발 및 잠재적 예술 소양의 발전 등 학습의 지속적인 참여는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성인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 재활과 관련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활력 있는 생활, 의사소통능력 증진, 사회로의 적응, 더 나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음악을 포함한 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의 참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 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Lee & Kim, 2015)에서는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예산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평가 능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평생교육의 참여 실태 파악과 요구 분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기존 연구(Ki, 2001)에서의 견해와 같이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는 성인장애학습자 당사자 본인의 의견에 따른 참여 실태 분석과 요구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학습에 대한 욕구와 참여 목적을 고려한 음악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중요하며, 장기적인 음악교육의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도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학습 참여 현황 및 명확한 요구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성인장애인에 관해 다양한 연구(Park & Yoo, 1997; Lee & Heo, 2017)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인장애인의 음악활동 연구들(Cho, 2016),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에 관련된 연구들(Park, et al., 2007; Lee, et al., 2016; Cho, et al., 2018)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장애학습자의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참여 현황이나 요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 중요성과 운영에 대한 요구를 다루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음악활동을 진행하는 교육관계자의 음악활동프로그램 과정의 경험을 통해 발견되는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기관인 장애인 야학의 음악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장애학습자의 참여 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운영 요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활동 관련 교육관계자의 인식 양상 발견을 통해 평생학습 차원에서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음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인 야학의 음악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장애학습자의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향후 장애인 야학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성인장애학습자의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장애인 야학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과 관련된 교육관계자의 인식
양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장애가 있는 성인은 비장애 성인과는 평생교육의 의미에 있어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생활 일과 상 비근로에서 오는 가정의 고립, 신변 처리에 대한 도움이나 자기관리의 부족, 시설 및 교육기관 이동 시 필요한 기술의 부족 등 성인장애인의 여러 특성에 관한 평생교육의 지원 체제는 아직 미흡하다.

Steere 외(1997)에 의하면 학령기 동안 발달장애학생이 특정한 직무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할지라도 교육의 성과는 미래 성인시기의 직업생활 성취로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공교육 정규과정 이수 이후의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여가활동이란 자신에 관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인격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Halpern, 1993). 성인장애인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여가생활과 교육, 복지의 욕구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Kim & Kim, 2016)에서 여가생활은 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노년기로 갈수록 만족도가 매우 낮아져 여가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Clark와 Kolstoe(1995)는 장애인의 성인생활적응을 강조한 전환교육과 관련해 의사소통이나 학업의 성취, 자기결정, 대인관계, 독립적·상호의존적인 일상생활, 건강과 건강관리, 통합된 지역사회로의 참여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요소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박영숙과 유연희(Park, & Yoo, 1997)는 장애인의 여가생활 양식 개발과 표현, 자기인식, 생활연령 사회기술 습득 및 활동의 참여, 즐거움 추구, 또래 집단 비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통합 등으로 여가활동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여가활동은 여러 목적을 추구하거나 기능과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실태조사(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4) 분석결과에서는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의 종류 중 문화예술 영역의 선호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실태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의 분석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22.9%가 평생교육에 참여하나 장애인 98.5% 이상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애 유형별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에서는 문화체육예술교육의 참여율¹⁾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 유형 전체에서도 평생교육의 6대 영역²⁾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4)에서는 음악 분야의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희망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성인장애인에게 있어 음악예술의 능력 함양은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향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성인장애인의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로는 ‘드림위드 앙상블’, ‘어울림 예술단’, ‘한빛예술단’, ‘에이블 뮤직그룹’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학교 형태의 장애인 교육 기관으로는 서울삼성학교, 다다예술학교, 한빛맹학교 등이 있으며, 장애청소년의 음악 교육을 위한 연구들(Kim, 2013; Choi, 2014; Lee, 2018)도 수행되었다. 다음의 [Figure 1]은 국내 성인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의 음악활동 사례와 관련된 사진들을 제시한 것이다.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sic festival
<Dreamwith Ensemble>

Musical Performance
<Alim>

Band Performance
<Hello sing Orchestra>

Dream Festival
<Dada arts School>

[Figure 1] Music activities of disabled adults and disabled youth in Korea³⁾

2. 선행연구 고찰

정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3~2017년) 계획의 제안을 통해 평생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교자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구의 수는 267만

1) 15가지의 장애유형 중 지체, 시각, 청각, 장루요루장애 등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체육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다.

3) 출처 :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
<https://cafe.naver.com/hellosem/258>
<https://blog.naver.com/eventsinhwa23?Redirect=Log&logNo=221223032440>

명으로 1만 명 당 539명 수준이고 장애의 출현 비율은 5.39%였으며, 장애 유형 중 '지체'의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의 현황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3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47%로써 고령화로 인해 2014년의 43.3%에서 3.3%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 중 4분의 1 이상은 1인 가구였으며, 문화 및 여가생활에 관한 만족도는 2014년의 2.9점보다 2017년에는 3.0점(5점 만점)으로 조금 향상하였다.

한편, 이수정과 허준(Lee & Heo, 2017)은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교수방법론 개발을 위해 실제 성인장애인에게의 적용과 그 효과성을 측정한 실험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특수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Lee & Kim, 2015)에서는 성인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순으로 진로와 직업교육, 여가교육, 정보화교육, 교양교육, 문해교육이라고 밝혔으며, 지원사항의 순으로는 장애인의 연금, 평생교육의 학습비 지원, 교육장소의 이동 간 활동 보조원 지원이라고 제시하였다.

교육적인 중재가 없으면 낮은 문해력은 계속되며, 삶의 기회는 제한되고 경제적인 독립에 있어 어려움을 갖게 된다(Hock, 2012). 특히, 장애가 있는 성인학습자는 일반 성인보다 읽기 능력이 낮으며, 빈약한 어휘력 및 사전 지식으로 텍스트를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Mellard & Patterson, 2008).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있어 효과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Britton, et al., 2008), 신체적인 건강(Depp & Jeste, 2006),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망(Guralink & Kaplan, 1989) 등의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장애 문제와 노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Sheets, 2005). 그뿐만 아니라 노화로 기인한 부정적 편견과 장애로 인해 소외되기도 하고,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차별에 직면한다(Bahm & Forchuk, 2009). 그러나 장애인 역시 비장애 노인처럼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trawbridge, Wallhagen & Cohen, 2002). 삶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망은 중요한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Germain & Gitterman, 2008), 지속적인 학습은 장애인에게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성인시기에 의미 있는 평생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정환경의 역할도 중요하다(Turnbull & Turnbull, 2001). 성인시기 장애인학습자의 교육 참여의 기회 제공과 자립적 생활 및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의 연계는 중요하며, 더 나은 삶과 여가의 만족, 사회적 적응 및 기술능력 함양을 위해 예술프로그램의 수행은 강조된다.

국내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Cho, et al., 2018)에서는 장애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복지관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프로그램의 적합화와 다양화를 위해 여러 영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박은혜 외(Park, et al., 2007)의 평생교육 관련 성인장애인

의 욕구와 인식에 대한 연구 분석결과에서는 문화예술참여프로그램과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프로그램의 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함을 밝혔다. 즉, 학령기 교육 이후 성인시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 연계에 있어 고등교육⁴⁾ 이외에도 전환적이고 통합적인 예술교육은 중요하며, 개인적,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인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성인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차별적 소외와 불평등 현상의 해소, 더 나은 삶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평생학습 차원의 음악예술교육은 강조된다.

그룹 홈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전환프로그램이나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적용은 일상생활과 생활기술능력, 사회적응의 기술, 여가 및 취미생활의 활용능력 등을 향상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Park, 2010). 그리고 그룹 홈에 거주하는 자폐범주성 성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호적 악기연주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자발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유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적용되었다(Cho, 2016). 이에 성인장애인의 건강증진, 정서 함양, 공동체 의식의 조성을 위해 양질의 음악학습은 중요하며, 자기의사결정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자본 확보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Lim, et al., 2010)에서는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 시설 및 공간, 편의시설, 기자재, 장비 등과 관련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예산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학습활동은 성인장애인의 개인 및 가정적 차원, 사회적 적응, 긍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장애인의 음악학습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해 탐색하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음악활동 관련 교육관계자의 다양한 인식 양상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D 시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 인가 장애인 야학⁵⁾에서 음악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남녀 성인장애학습자로서 연령은 만 20세~81

4) 국내 장애인의 고등교육 관련 기관으로는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호산나대학, 한국복지대학교 등 다양하다.

5) 2018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4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있으며, 교사 수는 148명, 학생 수는 512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는 126개이다. 음악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평생교육비용은 주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세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약 한 달 정도로 기관 관계자의 허락과 협조를 구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100부를 배부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한 연구의 최종 대상은 총 70명이다. 측정 문항의 내용 문장에 대한 표현은 성인장애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신체적 장애 등으로 직접 응답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아 응답하게 하고 이를 작성하였다.

D 장애인 야학은 2014년부터 기타 동아리를 결성하여 초청 공연, 대회 참여 및 수상, 평생학습 행사 및 축제 공연 참여 등 활발한 음악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참여했던 성인장애인 음악활동프로그램은 기타, 난타, 음악놀이, 노래 부르기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음악활동프로그램의 학습은 실기 중심으로써 수업참여자 중 문해학습자를 포함하고 있다. 수업방식은 악보나 가사, 형식 분석 위주의 학습보다는 주로 교강사의 실기 시범을 따라 모방, 반복하여 답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의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D 장애인 야학은 초등단계의 성인문해교육을 비롯해 중등~고등학교 반의 교육과정과 검정고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진행하는 음악프로그램 이외에도 토탈 공예, 시낭송, 태권도, 미술, 한문, 한국사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속된 성인장애학습자들은 지역의 음악 공연이나 평생학습 축제,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의 초청 공연, 기타 음악활동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성인장애학습자 학습 결과 및 평생학습 발표회 등의 참여를 통해 꾸준히 음악학습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

다음의 <Table 1>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D 장애인 야학 성인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배경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성별은 남성이 38명의 54.3%, 여성은 32명으로서 45.7%의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은 '성인전기'(만 18세~39세)가 31명의 44.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성인장애학습자의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가 40명의 57.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는 30명의 42.9%를 차지하였다. 본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0명의 42.9%의 비율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4명의 91.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본인의 종교는 '개신교'가 25명의 35.7%를 차지하였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이 43명의 61.4%를 차지하여 '기혼'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인장애인이 함께 사는 가족의 구성은 '부모 및 형제와 함께 산다.'의 경우가 18명으로 2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70)

Characteristics	Section	Frequency(%)
Gender	Male	38(54.3)
	Female	32(45.7)
Age Range	Early Period of adult (18~39 years)	31(44.3)
	Middle Period of adult (40~59 years)	18(25.7)
	Late period of adult (Above 60 years~)	21(30.0)
Type of Disabilities	Physical disabilities(Mental retardation, Brain lesion, Deafness, etc)	40(57.2)
	Psychological disorder(Intellectual disability, Autism, mental disorder)	30(42.8)
Highest Attained Education Level	Less than Elementary School	13(18.6)
	Elementary School	7(10.0)
	Less than Middle School	1(1.4)
	Middle School	13(18.6)
	Less than High School	1(1.4)
	High School	30(42.9)
	Drop out of College	2(2.9)
Income	College	3(4.3)
	Under 1,000,000 won	64(91.4)
Religion	1,000,000~2,000,000 won	6(8.6)
	Protestantism	25(35.7)
	Catholic	1(1.4)
	Buddhism	8(11.4)
	None	13(18.6)
Marital Status	Others	23(32.9)
	Never Married	43(61.4)
	Married	26(37.1)
Family Member	Others	1(1.4)
	Live alone	13(18.6)
	Live with spouse	17(24.3)
	Live with parents	15(21.4)
	Live with parents and siblings	18(25.7)
	Live with children	6(8.6)
	Others	1(1.4)
Total		70(100.0)

2. 조사도구 및 연구절차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D 장애인 야학의 음악활동 참여 실태와 운영 요구에 관한 분석을 위해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Cho, et al., 2018)와 관련 보고서(Kim, et al., 2014; Kim, et al., 2014)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음악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에 대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을 고찰하고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에서 성인장애인이 참여하는 대학이나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심의 문항 내용을 장애인 야학의 음악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장애인의 참여 현황 및 요구 분석에 적절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음악활동의 참여에 있어 장애요인이나 선호 유형, 활성화를 위한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의 문항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 배경으로는 성별, 연령(만 나이), 장애 유형, 교육수준, 월 가정 소득, 종교, 결혼 여부, 가족 구성 등 8문항의 구성이다. 그리고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음악활동 참여 실태에 관한 문항 내용으로는 선호하는 지원 사항, 음악활동 참여 교육비용, 음악활동 참여 기간, 1년 이내 가장 많이 참여한 음악활동프로그램 수, 가장 많이 참여한 음악활동프로그램, 음악활동 참여 목적,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주요 지출 비용 항목, 참여 장애요인, 좋아하는 음악 유형, 음악활동 수업만족도 등 10문항의 구성이다.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운영 요구에 대한 문항 내용으로는 희망하는 교육 횟수 및 시간대, 배우고 싶은 음악 유형, 음악활동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요구 사항 등 4문항이며, 설문 조사도구의 총 문항 수는 22개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장애성인과 비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및 음악활동에 대한 기존 문헌들과 국가에서 시행한 실태 조사 문항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여 성인장애인의 음악활동 참여 실태와 음악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거쳐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설문은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약 한 달 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

였다.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음악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관계자 3명의 심층면담이 수행되었다. 질문 내용은 교육관계자의 성인장애학습자 음악활동과 관련된 교육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음악활동 관련 교육관계자 3명의 인적사항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 A 참여자는 55세의 남성으로 면담 시기는 2019년 3월 27일이며, 1회의 면담을 시행하였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으로 거주지는 경기도이며, 종교는 기독교로서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10년이다. 담당하고 있는 수업 분야는 기타수업, 특별활동(음악), 문해수업, 검정고시반 등이다. 그리고 사례 B 참여자는 59세의 여성으로 면담 시기는 2019년 3월 27일이며, 면담 횟수는 1회이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며, 거주지는 경기도, 종교는 무교이다. 기관의 근무 경력은 10년이며, 수업 분야는 특별활동(음악), 문해수업, 검정고시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례 C 참여자는 61세의 여성으로 면담 시기는 2019년 7월 12일이며, 1회의 면담을 시행하였다. 학력은 2년제 대학 졸업이며, 거주지는 경기도, 종교는 불교이다.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5년으로 담당하는 수업 분야는 특별활동(음악), 문해수업, 시 낭송 반 등을 맡고 있다.

음악활동 관련 교육관계자의 심층면담에 대한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의 영역에서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종교 등이며, 그 외 교육기관의 경력이나 담당하는 수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는 음악수업에 참여한 교사의 교육 경험, 성인장애인의 음악활동 진행 방법 및 교육환경, 교사로서 느끼는 학습자의 음악수업에 대한 효과 및 만족, 음악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및 교육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조사 자료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 야학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실태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성인전기(만 18세 이상~39세), 성인중기(만 40세 이상~59세), 성인후기(만 60세 이상) 등으로 성인장애학습자의 생애주기를 구분하여 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개방코딩 및 선택적 코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음악활동 관련 교육관계자의 면담 시간은 각 회당 약 4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세 명의 면담 자료 분석은 녹음 및 메모의 수집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실태 분석

평생교육기관인 장애인 야학에서 음악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프로그램 참여 실태의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다.

1) 성인장애학습자의 선호 지원 사항

성인장애학습자가 선호하는 지원 사항에 관한 분석결과의 내용은 다음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시 가장 선호하는 지원 사항은 ‘이동수단 지원’(N=34, 48.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지원’(N=16, 2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지원’(N=8, 11.4%), ‘주변인들 지지’(N=7, 10.0%), ‘가족 지지’(N=3, 4.3%), ‘장애 특성 및 교육자재 지원’(N=2, 2.9%)의 순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인장애학습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은 ‘이동수단 지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주기별에 따라 살펴보면, ‘이동수단 지원’은 성인전기(71.0%)와 성인중기(27.8%) 학습자의 응답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인후기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동수단 지원’(33.3%)과 ‘경제적 지원’(33.3%)이 동일한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Preferred Supports

Preferred Support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Family Support	0(0.0)	2(11.1)	1(4.8)	3(4.3)	16.411	.088
Neighborhood Support	2(6.5)	2(11.1)	3(14.3)	7(10.0)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Materials Support	1(3.2)	1(5.6)	0(0.0)	2(2.9)		
Amenities Support	1(3.2)	4(22.2)	3(14.3)	8(11.4)		
Economic Support	5(16.1)	4(22.2)	7(33.3)	16(22.9)		
Mobility Support	22(71.0)	5(27.8)	7(33.3)	34(48.6)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2)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교육비용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비용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음악활동프로그램 참여시 교육비용은 ‘참여비용 없음’(N=54, 7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만원 미만’(N=14, 20.0%), ‘1만원 이상~5만원 미만’(N=2, 2.9%)의 순위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에 따른 응답의 결과에서도 성인전기(87.1%), 성인중기(66.7%), 성인후기(71.4%)의 학습자 응답에서 ‘참여비용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st of Participating in the Music Activity Program (N=70)

Cost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None	27(87.1)	12(66.7)	15(71.4)	54(77.1)	4.784	.310
Less than 10,000won	3(9.7)	5(27.8)	6(28.6)	14(20.0)		
10,000-50,000won	1(3.2)	1(5.6)	0(0.0)	2(2.9)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3)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기간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기간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4>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가 음악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은 ‘3년 이상’(N=51, 72.9%)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6개월 이하’(N=8, 11.4%)와 ‘1년 이상~2년 미만’(N=8, 11.4%)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년 이상~3년 미만’(N=2, 2.9%), ‘6개월 이상~1년 미만’(N=1, 1.4%)의 순위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생애주기별에 따라 살펴보면, 성인전기(80.6%), 성인중기(83.3%), 성인후기(52.4%)의 학습자 모두 ‘3년 이상’의 참여 기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eriod of Participation in the Music Activity Program

Period of Participation	Early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Less than 6 Months	2(6.5)	2(11.1)	4(19.0)	8(11.4)	9.563	.297
6months-1year	1(3.2)	0(0.0)	0(0.0)	1(1.4)		
1year-2years	2(6.5)	1(5.6)	5(23.8)	8(11.4)		
2years-5years	1(3.2)	0(0.0)	1(4.8)	2(2.9)		
More than 3years	25(80.6)	15(83.3)	11(52.4)	51(72.9)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4)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프로그램 참여 수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참여프로그램 수에 대한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프로그램 참여는 '2개의 프로그램 참여'($N=31$, 4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1개의 음악프로그램 참여'($N=21$, 30.0%), '3개의 음악프로그램 참여'($N=18$, 25.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생애주기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전기의 학습자는 2개(58.1%)의 프로그램 참여, 성인중기 학습자의 경우는 3개(44.4%)의 프로그램 참여, 성인후기의 학습자는 1개(38.1%)와 2개(38.1%)의 프로그램 참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Number of Participated Music Activity Program

Number of Program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1	8(25.8)	5(27.8)	8(38.1)	21(30.0)	6.881	.142
2	18(58.1)	5(27.8)	8(38.1)	31(44.3)		
3	5(16.1)	8(44.4)	5(23.8)	18(25.7)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한편, 성인장애학습자가 가장 많이 참여한 음악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성인장애학습자들이 1년 이내 참여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으로 '기타', '난타', '음악놀이', '노래 부르기' 등을 유형화한 다중응답 분석의

결과, 가장 많이 참여한 음악활동프로그램은 ‘기타’(N=58, 42.3%)였다. 두 번째로는 ‘난타’(N=47, 34.3%)이며, 그다음으로는 ‘노래 부르기’(N=28, 20.4%), ‘음악놀이’(N=4, 2.9%)의 순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생애주기별에 따라서도 성인전기(38.6%), 성인중기(22.9%), 성인후기(21.4%)의 학습자 응답에서 모두 ‘기타’ 연주의 음악활동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The most Participated Music Activity Program (N=70)

Music Activity Program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Guitar	27(38.6)	16(22.9)	15(21.4)	58(42.3)
Nanta	24(34.3)	11(15.7)	12(17.1)	47(34.3)
Music Play	1(1.4)	1(1.4)	2(2.9)	4(2.9)
Sing Songs	7(10.0)	11(15.7)	10(14.3)	28(20.4)
Total	59(43.06)	39(28.47)	39(28.47)	137(100.0)

5)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목적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목적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자기발전’(N=29, 41.4%)이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여가선용’(N=18, 25.7%), ‘친목도모’(N=16, 22.9%), ‘사회활동 참여’(N=7, 10.0%)의 순위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생애주기별에 따라서도 성인전기(45.2%), 성인중기(44.4%), 성인후기(33.3%)의 학습자는 ‘자기발전’의 참여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Table 7>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the Music Activity Program (N=70)

Purpose of Participation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 ²	P
Leisure	11(35.5)	2(11.1)	5(23.8)	18(25.7)	11.703	.069
Self-development	14(45.2)	8(44.4)	7(33.3)	29(41.4)		
Social Participation	1(3.2)	1(5.6)	5(23.8)	7(10.0)		
Fellowship	5(16.1)	7(38.9)	4(19.0)	16(22.9)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6)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시 지출 비용 항목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시 주요 지출 비용 항목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가 음악활동에 참여 시 주요 지출 항목은 '교통비용'(N=53, 75.7%)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식대 및 간식비용'(N=10, 14.3%), '프로그램 이용료'(N=6, 8.6%), '기타'(N=1, 1.4%)의 순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주기별에 따라서도 성인전기(83.9%), 성인중기(66.7%), 성인후기(71.4%)의 학습자 응답에서 모두 '교통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Table 8> Expenditure items for Participating in the Music Activity Program (N=70)

Items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 ²	P
Program	3(9.7)	1(5.6)	2(9.5)	6(8.6)	6.123	.410
Transportation	26(83.9)	12(66.7)	15(71.4)	53(75.7)		
Meals	2(6.5)	4(22.2)	4(19.0)	10(14.3)		
Others	0(0.0)	1(5.6)	0(0.0)	1(1.4)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7)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장애요인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시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가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인식한 장애요인으로 '이동거리 및 교통수단 문제'(N=46, 65.7%)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어려운 수업내용', '체력적인 고충', '주변의 시선' 등의 장애요인이 각각 6명의 8.6%로 동일한 비율이었다. 그리고 '교육시설의 불편함'은 4명의 5.7%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장애요인은 '기타'가 2명의 2.9%의 비율이었다. 이 결과는 성인장애학습자의 생애주기별에 따라서도 성인전기(83.9%), 성인중기(61.1%), 성인후기(42.9%) 학습자의 응답에서 모두 '이동거리 및 교통수단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9> The Obstacle Factors to Participating in the Music Activity Program

Factors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Difficult Contents	2(6.5)	1(5.6)	3(14.3)	6(8.6)	17.349	.067
Health	0(0.0)	1(5.6)	5(23.8)	6(8.6)		
Other people's attention	1(3.2)	3(16.7)	2(9.5)	6(8.6)		
Transportation	26(83.9)	11(61.1)	9(42.9)	46(65.7)		
Educational Facilities	1(3.2)	1(5.6)	2(9.5)	4(5.7)		
Others	1(3.2)	1(5.6)	0(0.0)	2(2.9)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8) 성인장애학습자의 선호 음악활동 유형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시 선호하는 음악활동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1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활동의 유형은 '따라 하기 쉬운 음악'(N=46, 65.7%)이었으며, '신나고 기분 좋은 음악'(N=16, 22.9%), '들었을 때 편안한 음악'(N=5, 7.1%), '추억이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음악'(N=2, 2.9%), '기타'(N=1, 1.4%)의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에 따라서도 성인전기(74.2%), 성인중기(44.4%), 성인후기(71.4%)의 학습자는 '따라 하기 쉬운 음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Preferred Music Type

Preferred Type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Exciting and joyful music	5(16.1)	7(38.9)	4(19.0)	16(22.9)	9.626	.292
Easy-to-follow music	23(74.2)	8(44.4)	15(71.4)	46(65.7)		
Relaxing music	1(3.2)	3(16.7)	1(4.8)	5(7.1)		
music with memories	1(3.2)	0(0.0)	1(4.8)	2(2.9)		
etc	1(3.2)	0(0.0)	0(0.0)	1(1.4)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9)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수업만족도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프로그램 수업만족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1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들이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수업만족도는 '만족함'($N=36$, 51.4%) 정도의 인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매우 만족함'과 '보통임'이 같은 비율($N=17$, 24.3%)로 확인되었다. 한편, 생애주기별에 따라 살펴보면, 성인전기의 학습자는 '만족함'(64.5%)이, 성인중기 학습자 역시 '만족함'(44.4%)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성인후기 학습자의 경우, '만족함'과 '매우 만족함'(각각 38.1%)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Table 11> Music Activity Program Satisfaction

Music Program Satisfaction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Neutral	7(22.6)	5(27.8)	5(23.8)	17(24.3)	5.452	.244
Satisfied	20(64.5)	8(44.4)	8(38.1)	36(51.4)		
Very Satisfied	4(12.9)	5(27.8)	8(38.1)	17(24.3)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2.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프로그램 요구 분석

성인장애학습자의 향후 음악활동프로그램 운영 요구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다.

1)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희망 교육 횟수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에 있어 희망하는 음악활동 교육의 횟수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1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가 희망하는 음악활동 교육의 횟수는 학습자의 대부분이 '1주일에 2회'($N=69$, 98.6%)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주일 1회'($N=1$, 1.4%)를 희망하는 것과는 큰 차이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별에 따라서도 성인전기(100.0%), 성인중기(100.0%), 성인후기(95.2%)의 학습자 응답에서 모두 '1주일에 2회'의 교육 횟수를 대다수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2> Desired number of times for Music Activity Program (N=70)

Number of Times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Ones a week	0(0.0)	0(0.0)	1(4.8)	1(1.4)	2.367	.306
Twice a week	31(100.0)	18(100.0)	20(95.2)	69(98.6)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2)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희망 학습 시간

성인장애학습자가 희망하는 음악활동 학습 시간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1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가 희망하는 음악활동 학습 시간대는 '평일 낮'(N=40, 57.1%)이었으며, 그다음으로 희망하는 시간대는 '평일 저녁'(N=30, 42.9%)이었다. 생애주기별에 따라서는 성인전기는 '평일 저녁'(77.4%), 성인중기는 '평일 낮'(83.3%), 성인후기는 '평일 낮'(85.7%)으로 희망하여 음악활동 학습 시간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성인장애학습자 생애주기에 따른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의 학습자 간에 희망하는 음악활동 학습 시간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X^2=27.163$, *** $p<.0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3> Desired study time of Music Activity Program (N=70)

Time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Weekday Day time	7(22.6)	15(83.3)	18(85.7)	40(57.1)	27.163	.000 ***
Weekday Evening	24(77.4)	3(16.7)	3(14.3)	30(42.9)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3) 성인장애학습자의 배우고 싶은 음악 유형

성인장애학습자의 배우고 싶은 음악활동프로그램 유형에 관해 그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1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의 희망 음악활동프로그램 유형에 있어 배우고 싶은 음악의 유형은 '대중음악'(N=58, 82.9%)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국악'과 '종교음악'(각각 N=5, 7.1%), '클래식 음악'과 '기타'(각각 N=1, 1.4%)의 순위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성인장애학습자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학습자의 응

답에서는 ‘대중음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의 학습자 간에 배우고 싶은 음악의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i^2=17.122$, $*p<.05$)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4> Type of Music Activity Program Participants want to learn

Type of Music Program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χ^2	P
Popular Music	28(90.3)	17(94.4)	13(61.9)	58(82.9)	17.122	.029*
Korean Traditional Music	0(0.0)	0(0.0)	5(23.8)	5(7.1)		
Religious Music	2(6.5)	1(5.6)	2(9.5)	5(7.1)		
Classical Music	0(0.0)	0(0.0)	1(4.8)	1(1.4)		
Others	1(3.2)	0(0.0)	0(0.0)	1(1.4)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4)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활성화 요구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활성화를 위한 요구 사항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1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요구 사항으로 가장 비중이 많은 의견은 ‘교육비 예산 지원 확대’($N=36$, 51.4%)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음악프로그램 개발’($N=19$, 27.1%)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N=11$, 15.7%), ‘음악장비 및 음향시설’($N=3$, 4.3%), ‘우수한 실습 교강사⁶⁾ 확보’($N=1$, 1.4%)의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에 따른 응답의 결과에서는 성인전기(71.0%)와 성인중기(44.4%)의 학습자는 ‘교육비 예산 지원 확대’를 가장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인후기(38.1%)의 학습자의 경우,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장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여기서 교강사란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성인장애인의 특수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장르별 음악실기 중심의 교수자를 의미한다.

<Table 15> Requirements for Music Activity Program Activation (N=70)

Requirements	Early Period of Adult	Middle Period of Adult	Late Period of Adult	Total	X^2	P
Developing Various Program	6(19.4)	5(27.8)	8(38.1)	19(27.1)	11.776	.161
Recruiting good instructors	0(0.0)	0(0.0)	1(4.8)	1(1.4)		
Sound system music equipment	1(3.2)	1(5.6)	1(4.8)	3(4.3)		
Expanding support for training costs	22(71.0)	8(44.4)	6(28.6)	36(51.4)		
Recruiting experts in Lifelong Education	2(6.5)	4(22.2)	5(23.8)	11(15.7)		
Total	31(100.0)	18(100.0)	21(100.0)	70(100.0)		

본 연구의 교차분석(X^2 검증) 결과,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 참여 요구 분석에 있어 희망하는 참여 시간대와 배우고 싶은 음악활동 유형은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 후기 학습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음악교육 관계자의 인식 양상 발견

장애인 야학에서 음악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관계자들의 인식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진행하는 효과적인 음악활동 운영과 교육 참여 지속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관계자의 차별화된 인식”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도출된 주제로는 평생학습 차원의 효과적인 음악교육과 음악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및 지원의 인식 양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장애학습자 당사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선정하여 즐거운 학습 분위기 속에서 주로 교강사의 실습을 듣고 따라 하는 반복적인 방식의 음악수업이 효율적임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노랫말 가사 및 코드 습득이나 음악적 실기 함양에 있어 문해교육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면담 참여 교육관계자들은 성인장애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음악활동 참여를 위해 학습자들의 음악적 학습능력 표현에 대한 공감과 학습 속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며, 예산의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의 인식 양상은 문해교육 연계 및 반복교육의 중요성 인식, 성인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배려와 지원 확대 인식 등의 범주화된 주제로 도출되었다.

1) 평생학습 차원의 효과적 음악교육: 문해교육 연계 및 반복교육의 중요성 인식

면담에 참여한 음악활동 교육관계자들은 성인장애학습자들의 실제적, 효과적인 음악 교육에 관해 비장애성인의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 음악프로그램 학습 진행과는 달리 참여 대상이 속한 지역은 장애학습자의 과반수 정도가 문해교육의 대상자임을 강조하였다. 참여자들은 음악학습에 있어 기간이나 진도, 음악프로그램 과정 및 계획안을 고려하기보다는 음악활동 교수자의 끊임없는 실기학습 모델링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음악학습능력을 습득할 때까지 주로 듣고 따라 하는 반복수업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성인장애학습자의 정서적 치유 측면에서도 유익한 음악활동을 통해 함께 노래하고 놀이로 즐거워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단계의 곡을 적용하여 음악학습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의 행사인 '장애인의 날 발표' 등의 연주에서 활용할 곡의 가사나 코드 습득에 있어 필요 시 문해학습과 시낭송의 수업과도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용 교재 선별은 교육부의 추천교재를 선택하고 있으나 음악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장애학습자들의 경우, 선호하는 곡의 유형은 7080세대의 음악이었다. 참여자들은 학습자의 요구 및 단계에 적절한 곡을 별도로 선정하여 수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음악 관련 유명인의 봉사 및 공연, 특강 등의 강연을 통해서도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적 소양을 함양하고 있다고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한 교육관계자는 성인장애학습자의 기타 실기수업 과정에서 지역의 경연대회에 도전하여 대상을 수상하게 된 학습의 성과로 인해 학습자들의 자존감이 향상하였으며, 음악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게 되어 자기주도적인 학습 참여와 더불어 능동적인 학습 욕구를 고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타학습을 담당한 참여자는 음악동아리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의 봉사 및 축제 초청 공연 등,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성인장애학습자들이 삶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시각 형성과 자신감의 증가, 삶의 만족감이 부여되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음악활동 성과를 통한 학습자들의 성장과 변화로 교육관계자들은 음악학습의 실천에 대한 사명감이 강화되었으며, 성인장애학습자의 배움과 가르침의 결실을 통해 삶의 보람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기타 수업에서) '사랑해'라는 노래를 했는데 처음에 한 코드를 가르치고 3개월 동안 나머지 세 개(코드)를 가르쳐서 그냥 대회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상을 탄 거예요. 학생들이 "어? 우리 잘 하나봐!"하면서 막 자신감이 생기면서... [중간 생략] D시

000대회예요. (TV방송) 그런데 나가보라고 하고.... 학생도 자꾸 늘어나고.... (교육관계자 B의 인터뷰에서)

음악수업에서는 가사 외우는 것, 첫째 읽기가 안 되니까 그냥 노래 같은 것은 외워가지고는 하는데 가사 집을 보고하는 것은 더 힘들어해요. 그냥 귀로 듣고 외워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워하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글씨를 보고 읽기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문해교육과 음악수업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용으로 (음악) 수업 하나 들어가면 가사노래, 그것을 문해반에 요청을 해요. (교육관계자 C의 인터뷰에서)

2) 음악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및 지원: 성인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배려와 지원 확대 인식

면담 참여자들은 성인장애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음악활동의 참여를 위해 학습자들의 음악적 학습능력의 더딘 성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매우 중요하며, 다채로운 음악수업과 보조 경비를 위한 예산의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여자들은 성인장애학습자의 개별적인 음악 선호를 존중하여 차별이 없는 교육의 기회 부여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음악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를 원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문화생활을 위한 학습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비장애인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음악학습 공간 및 교육환경의 마련을 위해 단기적 시행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사업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였다. 그 외에도 야학의 교육기관시설은 저층이 아닌 승강기를 사용하는 건물 위치의 조건으로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많은 성인장애학습자들이 통학 및 기관 이용 시 불편함의 소지와 비상시의 안전에 대해서도 환경적 여건의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한 참여자는 난타학습과정의 경우, 학습성과 및 공연 등의 발표 준비에 있어 한 곡의 연주를 온전히 연습하고 소화하는데 대략 1년이 소요되어 실습을 진행하는 교사는 유사한 내용을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학습방식에 대해 큰 인내심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기타학습을 담당한 참여자 역시 학습의 초기에 코드 1개를 습득하는 데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수년의 가르침 끝에 현재 10곡이 넘는 곡을 학습자들이 답습하여 대중음악 기타연주에 있어 3개의 코드 정도를 무난하게 연주에 활용한다고 하였다.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참여자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인 장애인 야학은 도청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기관의 특성상 야간 수업을 필수로 진행하는데 있어 저녁 식사 해결은 푸드뱅크 등으로 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현행하는 급식 지원의 확장을 요구하였으며, 전문 인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행정업무 인력 및 교통 지원의 확대를 토로하였다. 또한, 기관의 학습만족으로 인한 성인장애학습자의 증가는 기쁜 일이나 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참여자는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조례나 법안 개정을 통해 강조되고 있으나 성인장애인의 자립과 음악 학습권의 보장, 음악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계속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님 (가족)들이 직장도 있고 종합복지관이 끝나면 중증 장애인들이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이) 야학이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 이리로 다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 생략] 저희들은 9시에 수업이 끝나요. 저녁에... 그럼 뒷정리하다 보면 10시, 11시가 돼요. (귀가 시) 콜 벤도 해주고요. [중간 생략]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관련된 조례나 법안은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이 채워지고는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한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해요. (교육관계자 A의 인터뷰에서)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야학에서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성인장애학습자의 참여 실태와 향후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 성인장애학습자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음악활동 관련 교육관계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발견되는 인식 양상을 살펴해보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야학 음악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장애학습자의 참여 실태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음악교육 참여 시 이동수단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활동의 참여에 있어 주요 지출 비용 항목은 교통비용이었으며, 음악프로그램의 참여에 있어 장애요인 역시 이동거리 및 교통수단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이용에 있어 장애인 교통수단의 편의 제공 확장과 이동 안전에 관한 보조 인력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비학령시기에 비근로의 경우가 많은 성인장애학습자가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동 시의 안전을 더욱 고려해야 함이 강조된다. 또한, 음악학습의 시간 분배 및 활용, 다양한 주제의 음악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도 장애학습자의 신체적인 불편함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의 지원과 조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성인장애학습자의 거주지에서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늘리도록 해야 하며, 장애에 따른 학습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한 학습자 맞춤형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장애학습자들이 소외되고 고립된 생활 일과에 방치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에 따른 음악교육 모형의 구체적인 구안 제시 및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성인장애학습자들은 음악활동 참여에 있어 자기발전의 목적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한 음악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음악 유형은 따라 하기 쉬운 음악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음악활동을 진행하는 교강사는 학습자들에게 실기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연주에 활용이 쉽고 합리적인 음악적 요소를 우선하여 수업에 적용, 경험하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즐겁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성인장애학습자의 수요 및 요구에 따라 곡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음악의 선정에 있어 장애학습자 당사자의 선택권과 역할, 의사결정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음악활동을 매개로 나타나는 학습 상황에 있어 교육기관 및 관계자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동시에 학습자 동료 간의 원활한 상호적 존중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의 증진과 심리적 즐거움, 자신감을 상승할 수 있는 음악프로그램 활용이 요구된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에서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47%로 고령화임을 감안 할 때, 성인장애학습자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전환지원기관의 기능을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음악교육에 있어 노인 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다른 세대와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 및 생활지원 관리 서비스, 자조모임 등의 활성화로 성인후기의 노년시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역의 공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은 인적·물적 자원과 시설을 장애학습자들에게 개방하여 우수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통합교육 측면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향후 장애인 야학의 음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인장애학습자의 요구 분석결과, 성인장애학습자가 가장 희망하는 음악활동 관련 교육의 횟수는 1주일에 2회 정도였으며, 평일 낮 시간대의 운영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희망 음악 유형은 대중음악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차분석의 결과에서는 원하는 학습 시간대와 배우고 싶은 음악 유형이 성인장애학습자의 생애주기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학습자 간에 희망하는 시간대와 선호 음악 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생애주기별에 따라 희망하는 학습 시간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인중기와 성인후기의 60세 이상 학습자들은 평일 낮 시간대를 선호하였으며, 성인전기 학습자는 평일 저녁 시간대를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음악 유형에서는 성인후기 학습자보다 성인전기와 성인중기 학습자의 응답에서 대중 음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성인장애학습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시기별에 따른 장애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수렴한 음악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강조된다. 또한, 분석 결과에서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학습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음악학습의 동기 유발 촉진에 있어 음악적 활력 요소를 구분, 분별하여 실습활동에 부여해야 함이 강조된다. 교육기관에서는 성인장애학습자의 지역사회적 적응과 진출에 유용한 최신 흐름에 맞춘 양질의 음악활동을 공급하도록 해야 하며, 세대별에 따른 음악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성인장애학습자들은 음악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비의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성인장애학습자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생애주기별에 따라 차별성을 띤 교육과정프로그램의 적용과 더불어 학습자의 장애 정도와 특수성에 적절한 음악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인장애인이 속한 사회의 평생교육 관련 인적자본 개발과 음악교육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비용의 지원은 확충되어야 하며, 평생교육 예산 확대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인 제정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학령기 이후의 기나 긴 성인시기의 음악학습 기회와 참여 지속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장애인의 기호를 중심으로 흥미 및 적성을 반영한 커리큘럼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의 준비를 위한 교육 이수도 권면해 볼 수 있겠다. 성인장애학습자가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음악활동을 위해 교육기관과 산학 간의 협동적 체제가 구성되어야 하며, 평생학습권을 위한 장애인 수당이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가족 소득 보장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음악 전문가의 협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음악교육 및 재활을 포함하여 성인시기에 필요한 자립적인 기능의 습득을 위해 통합적인 전환교육은 실제적인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조합되어 상호적 영역으로 연계되어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성인장애학습자의 실존적인 문제와 직결된 가정배경 및 생활환경도 중요하므로 이와 연결될 수 있는 음악활동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가족의 부재나 사후의 생활 보장에 있어 후견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참여는 97.4%로 대부분이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참여한

경우에도 한 가지의 프로그램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이 속한 장애인 야학의 학습자들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학습한 전체 프로그램 중 음악활동프로그램 참여는 적극적인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동아리 발표 및 축제 행사 등 능동적인 참여도를 볼 때 음악활동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인식 수용과 그 효과성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교육기관의 음악활동에 대한 유익성과 강점을 전달할 수 있는 체제 및 과정의 검토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가 실행되어야 하겠다. 성인장애인의 생활상 연령에 적절한 음악활동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연령을 고려한 개인적, 가정적, 직업생활에서의 학습준비는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장과 지역사회로의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 야학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활동과 관련된 교육관계자의 인식 양상 발견을 위한 심층면담의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인식은 평생학습 차원의 효과적인 음악교육 인식, 음악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및 지원 등의 양상으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문해교육 연계 및 반복교육의 중요성 인식, 성인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배려와 지원 확대 인식 등 차별화된 인식 양상의 주제로 범주화되어 도출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음악활동 관련 교사는 학습자의 효과적인 음악활동 진행을 위해 성인장애학습자의 학습 속도 및 특수적 학습상황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성인장애학습자의 음악적 재능 계발과 창의성 발견을 위해 실습능력 단계와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교재, 교구, 악보, 악기를 보급해야 한다. 학습자의 가정 및 교육환경, 장애 유형, 사회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학습내용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활력 요소와 직업의 탐색을 위한 음악학습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성인장애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동기 유발과 음악적 학습능력 표현을 위한 전략 기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교수 스타일은 음악적 잠재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의 역량 향상에 힘써야 한다.

건전한 음악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음악활동 관련 여가생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인시기의 전환적 교육에서부터 노년시기 교육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인장애인의 음악활동을 위해 예산 및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다. 또한, 교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 전문가의 관심, 평생교육의 전문 인력 지원으로 성인장애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요구가 반영될 수 있고 음악활동프로그램 참여 촉진을 돕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지닌 성인장애학습자의 실제적인 음악교육을 위해 직업 재활 및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교육관계자들의 협업적인 인식 수용이 필요하며,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제공, 지원 여건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장애인의 음악활동은 심리적·

신체적 활동의 표현과 함께 학습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 보람을 느끼는 기회를 부여하는 중재활동으로서 교육적인 측면과 아울러 재화와 자립, 복지적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성인장애학습자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음악활동공동체에서 친밀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주체의 집단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의 감소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기술능력의 탐색과 방안 모색도 강구된다.

성인장애인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전문 음악 교강사를 섭외 시 장애인의 문제 행동 및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재 매뉴얼을 보급해야 하며,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예술 강사가 협력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음악연수는 지속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나 성인을 위한 특수음악교육 전문 인력, 봉사 및 활동 보조인을 확충하여 성인장애인의 사회적 기술 및 자조훈련 관련 자격과 정의 이수를 돕도록 해야 한다.

학습기회 선정에 있어 복지 수혜 계층을 우선하도록 하고, 일반 성인들과 통합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음악학습 분위기의 조성과 함께 장애인 전문 예술 고등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기관 단체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음악동호회활동으로 성인시기로의 원만한 생활적응과 건강관리 및 교양습득을 위한 계속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 외 장애인 대상의 음악 관련 자격증 과정 개설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성인장애학습자의 개별적, 다양한 특성 차이를 반영한 새롭고 평등한 음악교육 서비스의 실천이 요구된다.

성인장애학습자들은 음악학습의 습득 속도가 늦고, 자립 및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므로 장애성인의 노년시기를 대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장애인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로 오는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 법적 조치와 교육제도는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 있어서도 사회적 편견의 축소와 자기계발, 음악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정책적 방안의 제시와 공교육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인장애인의 학습권 존중을 위한 평생학습의 정책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 부처 간 지원 사업 및 프로젝트의 연계 체계 정립과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및 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행·재정적 제도의 구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한 곳의 장애인 야학 성인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시설 및 지역을 확장하여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성인장애인의 요구와 인

식 측정에 적절한 음악활동 평가 관련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음악활동학습의 효과성 등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음악학습 성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인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 정도 및 유형 차이를 고려하여 음악학습에 관한 장기적인 관찰이나 FGI, 교육 전문가의 인식 파악 및 면담 등 심층적인 질적연구를 추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hm, A., & Forchuk, C. (2009). Interlocking oppressions: The effect of a comorbid physical disability on perceived stigma and discrimination among mental health consumers in Canada.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7(1), 63-70.
- Britton, A., Shipley, M., Singh-Manoux A., & Marmot, M. G. (2008). Successful aging: The contribution of early-life and mid life risk fa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6(6), 1098-1105.
- Cho, C. B., Kim, D. Y., & Lee, S. J. (2018). Analysis of the situation for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adult in the lifelong education and demand of it: Focusing on the users of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1), 195-217.
- Cho, S. J. (2016). The effects of interactive instrument playing program on social interaction of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Korea Music Therapy Education Association*, 13(1), 89-110.
- Choi, E. A. (2014). A study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clusive music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2), 115-138.
- Clark, G. K., & Kolstoe, O. P. (1995).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2nd ed.)*. Boston: Allyn & Bacon.
- Depp, C. A., & Jeste, D. V. (2006).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1), 6-20.

- Germain, C. B., & Gitterman, A. (2008).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Advances in knowledge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uralink, J. M., & Kaplan, G. A. (1989). Predictor of healthy aging: Prospective evidence from the Alameda. Country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9, 703-708.
- Halpern, A. S. (1993). Quality of life and a conceptual framework for evaluating transition outcomes. *Exceptional Children*. 59, 486-498.
- Hock, M. F. (2012). Effective instruction for adults with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5(1), 64-78.
- Ki, Y. H. (2001). *Program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Seoul: Hakjisa.
- Kim, D. Y., & Kim, Y. S. (2016). Analysis of leisure life and education-welfare desires of disabled adults according to life-cycl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and Post-Secondary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2(1), 89-111.
- Kim, H. Y., Kim, D. Y., Hong, J. Y., & Kim H. D. (2014).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higher lifelong education foundation for visually impaired student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Kim, K. R., Kim, C. H., Yoon, J. C., & Lee, H. Y (2014). *A survey report on lifelong education for disabled adults*. Seoul: The National Union of Parents for the Disabled
- Kim, Y. H. (2013).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music program for th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4), 27-52.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4).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income guarantee system for the disabled*.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B. L. (2018). The development of music criticism instruction model for the visually impaired learner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169-193.
- Lee, J. E., Yeom, M. S., & Kim, H. J. (2016). Implementing university based post secondary educa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5(2), 79-110.
- Lee, S. J., & Heo, J. (2017).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4), 61-90.
- Lee, S. J., & Kim, C. H. (2015). Stud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n the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4), 103-126.
- Lim, K. W., Kwak, S. C., & Lee, Y. R. (2010). The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 for adult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6(4), 207-247.
- Mellard, D. F., & Patterson, M. B. (2008). Contrasting adult literacy learners with and without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29(3), 133-144.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Status survey on disabled persons*.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4). *Special education status survey*. Seoul: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Park, E. H., Won, J. L., Kim, J. Y., & Choi, O. E. (2007). Needs assessment survey regarding life-long educa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4(1), 3-24.
- Park, S. T. (2010). The study ab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group home. *Disability and Employment*, 20(4), 323-354.
- Park, Y. S. & Yoo Y. H. (1997). *A study on the leisure activity of the students with disability*. Research of Rehabilitation (18), 18-101
- Sheets, D. (2005). Aging with disabilities: Ageism and more. *Generations*. 29(3), 37-41.
- Steere, D., Ellerd, D., Sampson, M., & Barry, M. (1997). Enhancing and expanding supported employment in a large rural state: Montana's projects with industry. *Rural Special Education Quarterly*. 16(3), 3-10.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Strawbridge, W., Wallhagen, M., & Cohen, R.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Self-rated compared with Rowe and Kahn. *Gerontologist*. 42(6), 727-733.

Turnbull, A., & Turnbull, H. (2001).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Collaborating for empowerment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Received: 31 August 2019, Reviewed(Revised): 6 October(11 October) 2019

Accepted: 30 October 2019, Published: 30 November 2019

Su-Jeong Han: E-mail: seaedumu@naver.com

Visiting Professor,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201-11, Giheung-gu, Yongin, Gyeonggi Province